

바다 소년과 인어의 우정...편견 넘어 진정한 소통 이끌어

리뷰 - ACC 가족오페라 '물의 아이'

미디어아트로 표현 '윤슬' 신비로움
라이브 애니메이션 화려한 삽화 눈길
전 연령 함께 즐길수 있는 가족공연
오케스트라 음향 전달 아쉬움 남아

어떤 공연은 객석을 떠나는 순간 잊히지만 시간이 흘러도 뇌리에 남는 것도 있다. 지난 24일 ACC 예술극장에서 영아츠컴퍼니가 선보인 가족오페라 '물의 아이'는 어떤 작품이었을까.

기자는 공연을 관람한 뒤 밖으로 나서는 관객들의 후론(後論)에 귀 기울였다. 어떤 아이는 들뜬 모습으로 인어 '아리'와 소년 '오동이'의 모험기를 회자하는 반면, 기대가 컸던 탓인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어린이 관객들의 마음에 평생 남는 작품이 되기 위해 어떤 점이 더 필요할지.

가족 오페라 '물의 아이'는 바다에서 자란 소년 오동(태나·김지훈)과 인어 아리(소프라노·최예은)의 우정 이야기를 다뤘다. 5세 이상 관람가였으며 주말 시간을 내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이 대부분이었다.

공연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풍경은 플로어에 드리워진 파랑(波濤)이다. 미디어아트를 통해 형상화한 윤슬은 바다 속 깊이 와있는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천장에서 전통형 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는 모형

해파리와 돛 등도 '바다 전설'이라는 공연 컨셉과 어울렸다. 이 밖에도 비눗방울, 라이브 애니메이션 등 시각 요소가 풍부해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가족 공연으로 적합해보였다.

다만 볼거리 못지 않게 오페라에서 핵심적인 것은 작품의 골자가 되는 '서사'다.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레이션을 활용하거나 아리아에 서사를 녹여 내러티브를 전하는 방식은 전략적이었으나, 본무대 한 단 아래에 위치한 오케스트라 피트(OP)에서 들려오는 음향이 다소 컸다. 배우들의 대사 위에 음악이 레이어링 돼 소리가 공명하는 것처럼 들렸다.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컬 '사가고'에서 무대 위에 14인조 빅밴드를 그대로 올려 서사와 배경음의 조화를 이룬 방법 등이 떠올랐다.

물론 일부 씬에서 피트에 조명을 비추며 지휘자와 문답을 이어가는 등 연주단을 주역으로 끌어오는 시도는 흥미로웠다.

작중 마을 사람들에게 인어 '아리'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오동이는 주변의 편견과 차별을 넘어 서아리는 진정한 소통을 나눈다. 교훈적인 내용을 판타지 속에 결합시킨 방식은 나름 호평할 만 했다.

인어 '아리'는 통통 튀는 인간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서양의 세이렌 신화나 바빌로니아의 수신 여아 등과 다른 친근한 이미지로 아이들에게 호감을 줬다.

주술사 우루술사(바리톤·류동휘)가 어린이 관객들에게 퀴즈를 내거나 객석에서 배우가 나타나는 동선은 흠이 없는 집중력을 붙여주는 장치들이었다.

라이브 애니메이션과 화려한 삽화를 더한 전라도 사투리를 접목한 부분은 지역 공연 특성을 살



지난 24일 ACC 예술극장에서 가족오페라 '물의 아이'가 펼쳐졌다. 인어가 어린 오동이의 과거를 회상하며 독창하는 장면. <영아츠컴퍼니 제공>

린 개작의 흔적이다.

공연은 진지한 아리아에 위트 있는 동작을 곁들여 아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다만 8~90년대 유행한 '송구리당당 댄스'나 "침으로 장을 담으면 '퇴장' 등 고구한 유머가 뉴미디어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통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였다.

라이브 애니메이션과 화려한 삽화를 더한 전라도 사투리를 접목한 부분은 지역 공연 특성을 살

어진 LED 디스플레이는 원근감을 자아냈으나 뾰족한 모양 탓에 이미지가 분산된 느낌이 들었다.

일레로 우루술사가 등장할 때 비친 산수풍경은 삼각형 스크린에 담기는 적절했으나, 정방형의 중심에 인물이 위치하는 대부분 이미지들은 애니메이션이 분산돼 보여 아쉬웠다.

그럼에도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던 장면은 단연 인어 아리가 들려준 청아한 독창이었다.

티 없는 소프라노의 목소리는 오페라 감동의 본질이 서사와 함께 '소리'에 있음을 방증했다. 팜플릿에 곡목이 나와 있지 않아 노래들을 레퍼토리로 소개하는 것도 '음악'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일 것 같다.

한편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어린이정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을 통해 전국에서 상연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오kina와에서 열리는 문화도시광주전 '서로 엮은 이야기'

28일~9월 23일 사카미미술관

광주와 오kina와는 역사적인 아픔을 겪은 지역이다.

80년 5월 신군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한 살상과 폭행을 자행했다. 현재까지도 첫 발표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상자 수조차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다.

1879년 메이지정부에 의해 일본에 편입된 오kina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당시 미군뿐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종전 후 오kina와는 1972년까지 미군이 점령했지만 현재는 일본에 반환됐다. 주일미군이 주둔한 탓에 정치사회적 문제가 대두된다.

광주·전남 작가들과 오kina와 작가들이 역사와 평화를 주제로 전시를 열어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문화도시광주전을 오kina와 사카미미술관에서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 주제는 '서로 엮은 이야기'.(개막식은 28일 오후 3시)

광주·전남에서는 김화순 작가를 비롯해 노은영, 박성완, 이상호, 이세현, 이준석, 하성흡, 홍성담 8명이며 오kina와에서는 킨조 미노루, 나치라 코우시치, 요나하 타이치, 이사키키 카즈코, 나가마노 부에 등 6명이 출품했다.

홍성담 작가의 '마부니의 바람'은 1945년 오kina와 전투의 마지막 격전을 형상화했다. 마부니 절벽에서 뛰어내린 민간인의 모습을 나비의 날갯짓으로



김화순 작 '눈오는 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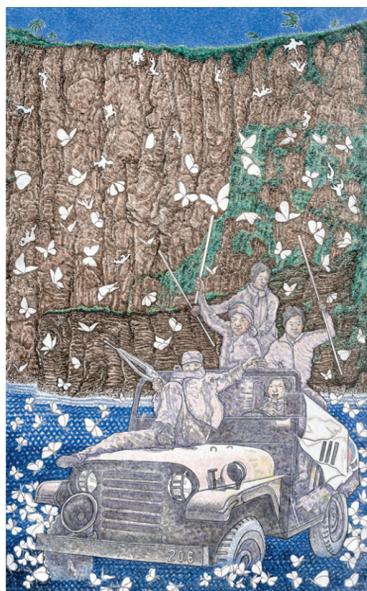
묘사했다. 나비 날갯짓은 나비효과를 일으켜 80년 광주에 이르러 혁명의 태풍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준석 작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려'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미래의 희망임을 역설하며 이상호 작 '일제를 빛낸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 속 친일반민족행위자 92명을 수감된 채워 그림속에 가둔 이미지다.

하성흡의 '1980.5.21.'은 집단 발표의 혼돈의 상황을, 김화순의 '눈 오는 도청'은 날리는 눈발 하나 하나에 그날의 이야기를 투영한다. 이세현 작가는 역사의 증거인 장소에 돌을 던져 진실이 드러나길 희망하며 박성완 작가는 인권운동을 하던 할머니들의 초상을 그렸다.

노은영 작가의 '곳(?) 자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인류의 반복된 행위를 조형화한다.

한편 김준기 관장은 "이번 전시는 광주와 오kina



홍성담 작 '마부니의 바람'

와에 드리워진 아픈 역사를 모티브로 한다"며 "오늘의 평화가 있기까지의 지난한 과정과 아픔의 시간을 사유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 본성과 삶의 가치를 묻다

광주연극배우협회 '나무는 서서 죽는다'...29~31일 미로센터

스페인 출신의 극작가 알레한드로 카소나는 희곡 '최초된 인어', '새벽의 여인', '세 번째 말' 등을 통해 인간 본성과 사회문제를 다루었다. 현실과 환상, 죽음과 생명을 넘나드는 작품들은 오늘 날에도 감명을 준다.

그중 1949년 작 '나무가 서서 죽는다'는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초월화한다.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서서 죽는 나무에 빗대, 품위 있는 삶과 자존(自尊)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회장 이솔·광주연극배우협회)가 연극 '나무는 서서 죽는다'를 오는 29~31일 미로센터 미로극장 2관에서 펼친다.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영혼이 다친 사람을 치유해 주는 '영혼의 집'은 이상한 분위기와 수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마르파(이지은 분)는 생을 마감하려던 찰나 영혼의 집 소장(김민성)의 장미꽃 다발과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구원받는다. 또 다른 손님 발보아(노희실)는 20년 전 행실이 나쁜 손자를 내쫓고 난 후, 생기 잃은 아내를 위해 자신이 손자 인척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던 중 진짜 손자가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편지가 집에 도착한다.

영혼의 집 소장은 손자를, 마르파는 손자의 아내를 연기하면서 일주일간 함께 시간을 보낸다. 행복한 연극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날, 진짜 손자가 집으로 찾아오는데...

작품은 가족 드라마의 의미뿐 아니라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할머니가 손자를 위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 연극 '나무는 서서 죽는다' 연습 장면. <광주연극배우협회 제공>

해 보여주는 희생, 가족 간의 유대감과 사랑 등이 주요 메시지로 전달된다.

광주연극배우협회 이솔 회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배우들은 땀과 열정으로 이 작품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며 "역경과 고난 속에도 꽃피어 서 있는 나무처럼, 인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무료 관람, 네이버폼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클래식 명인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광주문화재단, 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양성원·송영훈·김다미 참여

'비르투오소'(virtuoso)란 고도의 기술을 보여주는 예술 명인을 뜻한다. 실력 있는 세 명의 실내악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우수공연초청기획 '비르투오소들의 조우(邂逅)'를 오는 3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인터파크 클래식 부문에서 예매율 2위를 유지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전국 투어 공연이다.

프랑스 작곡가 쥘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쇼팽의 '녹턴'으로 계속된다.

음악으로부터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슈만의 '환상 소곡집'도 레퍼토리에 있다. 1곡 '저녁'으로부터 출발해 2곡 '비상', 3곡 '왜'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밖에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5번도 관객들을 만난다. 비교적 가벼운 느낌의 곡이지만 어렵고 신비로운 느낌의 2악장은 '유령'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피아니스트 양성원은 2011년부터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낭정과 열정 사이' 시리즈를 통해 전국투어를 진행해 왔다. 송영훈 또한 'KBS1 FM 송영훈의 가정음악' 등으로 대중에게 사랑받아 왔으며,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실내악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송선아 담당은 "이번 공연 등 '우수공연초청기획'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선정 지원을 받아 총 3회 기획했다"며 "듀오, 트리오 등 앙상블이 선사하는 클래식의 묘미와 낭만을 즐겼으면 한다"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피아니스트 양성원

했다. 한편 우수공연초청기획 마지막 무대는 오는 9월 4일 극단수수파보리의 '통속소설이 머 어때서?!'가 예정돼 있다.

전석 1만원(7세 이상 입장),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전문기획자 양성과정 29일 개강

니콜라 부리오(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이숙경 휘트스 미술관 관장(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뉴뮤지엄 디렉터(제8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노암 시걸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LG전 자어소시에티 큐레이터, 아론 시저 델피나 재단감독 등...

(재)광주비엔날레가 이번에 운영하는 아카데미 전문기획자 양성과정은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인사들 면면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아카데미 전문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해 인도, 중국 등 아시아권 포함 총 12개국 전시기획자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5명은 국제적 미술계 인사들이 강사진으로 꾸려진 아카데미를 통해 심포지엄, 아티스트 토

크 등에 참여한다. 또한 라운드테이블 등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팅에 대한 이해와 다학제적 논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설립해 문화예술 발전, 창작 지원 등을 추진해온 (재)라온문화재단(이사장 오정화) 후원으로 운영된다.

이 지원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광주비엔날레가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는 후문이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전문기획자 양성 코스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하는 동시대 미술 현장 교육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교육을 매개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